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 서구 여성의 사진을 중심으로(1920~1994) -

이주연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 변화된다. 문화 요소들은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해 나가며, 이러한 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어떤 문화 요소들은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되어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요소가 생성하여 낡은 것을 대체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성격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에는 지속적인 주기가 있으면서, 또한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식은 이러한 문화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문화 요소로서 문화로부터 성장하고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산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계속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의 변동이론중 순환론에 입각하여 20세기의 복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복식의 일부인 헤어스타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한 서술형태의 복식사 연구 방법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한 내용분석적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의 측정 요인을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 등으로 분류하여 각 측정요인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2. 그 변화 양상의 규칙적인 주기성에 대해 조사한다.
3. 각 측정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 헤어스타일의 변화(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와 의복스타일의 변화(스커트 길이, 허리 선 위치)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1920년에서 1994년까지의 Vogue지를 이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복식 관련 서적 및 패션 잡지, 헤어 잡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과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 검증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머리 길이는 헤어스타일의 측정 요인 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크고 잦았으며 1920년대의 머리 길이가 가장 짧았고 1960년대에는 머리 길이가 극단적으로 길어졌다. 머리 폭과

머리 높임도 머리 길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머리 폭이 좁았고 머리 높임도 낮았으며 1960년대에는 머리 폭도 넓고 머리 높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Moving Average를 이용하여 헤어스타일 측정 요인의 변화의 규칙성을 고찰해 본 결과 주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 등의 변화에서 상승의 기간후에는 반드시 하강의 기간이 오며, 상승의 기간이 짧으면 하강의 기간도 짧고, 상승후에 나타나는 하강은 상승이전의 지점보다 낮아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강의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헤어스타일 측정 요인들(머리길이, 머리폭, 머리높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헤어스타일 측정 요인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머리 길이와 머리폭, 머리폭과 머리 높임은 정적인 관계로, 머리 길이와 머리 높임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머리폭은 넓어지나 머리 높임은 낮아지고 머리 폭이 넓을 때에는 머리 높임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 측정 요인과 스커트 스타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머리 길이와 스커트 길이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의복과 헤어스타일은 서로 독립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화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실은 Kroeber가 주장한 양식의 주기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복식이 사회 문화의 한 요소로서 사회 변동의 법칙적 유형을 따르고 그 법칙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헤어스타일 이외에 다른 문화 요인이나 다른 시기, 다른 장소를 연구함으로써 사회 문화변동의 유형을 더 잘 파악하고 복식이 문화의 한 요소임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